

SKY대 합격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부익부 빈익빈

집값 높은 서울 강남 진학률 최고...구례·고흥은 전무

명문대 합격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인 서울 강남과 서초 등 강남지역은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구례, 고흥군은 단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 빈부 격차에 따른 학력차 최소화 가시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최근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별 '주택 평균 가격과 학원 수강자수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값, 학원 수강자수와 'SKY' 진학자수의 다중 상관계수가 0.89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관계수는 두 항목간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이면 두 항목이 완전한 상관 관계를, 0.7~0.8 정도면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SKY' 합격률(SKY 09 학년도 합격자수/지역 고3학생수)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8.95%로 1위, 서초구가 8.82%로 2위, 경기 과천시가 8.55%로 3위였고 의왕시(8.47%), 광진구(7.09%), 부산

2009 집값 최상위지역 명문대 합격자

집값 순위	지역	SKY 합격자수	평당가격 (단위:천원)
1	과천시	135	14,892
2	강남구	742	13,708
3	서초구	404	11,133
4	용산구	85	11,077
5	송파구	304	9,687
6	강동구	300	7,955
7	성남시	372	7,608
8	양천구	275	7,508
9	영등포구	63	7,223
10	광진구	313	7,222

2009 집값 최하위지역 명문대 합격자

집값 순위	지역	SKY 합격자수	평당가격 (단위:천원)
232	영광군	6	705
231	장수군	2	716
230	신안군	1	721
229	통화군	1	731
228	보성군	2	749
227	곡성군	4	749
226	고흥군	0	785
225	김제시	3	787
224	임실군	0	808
223	구례군	0	824

연제군(6.90%)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위의 합격률 평균은 7.37%로 전국 평균(1.87%)의 4배에 달했고, 집값 1, 2, 3위인 과

천시, 강남구, 서초구는 합격률에 서도 순위만 바뀐 1~3위를 차지했다.

또 합격률 상위 10개 지역중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8개 지역에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있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을 뺀 'SKY' 합격률 순위에선 광주 서구가 3.45%(62명)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집값 하위 10개 지역의 SKY 합격률은 0.18%로, 전국 평균의 10분 1 수준이었다.

집값 최하위 10위권에는 영광과 신안, 보성, 곡성, 고흥, 구례 등 전남지역 6개 군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09학년도에 구례와 고흥은 'SKY'에 단 한명도 진학시키지 못했으며, 신안 1명, 곡성 4명, 보성 2명, 영광 6명 등에 그쳤다.

권영길 의원은 "자산과 소득이 명문대 진학에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서민층의 아이들이 명문 대학에 갈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고맙다, 단비" 생기 돈 들면 곡우(穀雨)인 20일 광주·전남지역에 20~90mm의 단비가 내린 가운데 화순군 화순을 대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뜻자리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모내기는 20여 일간의 육묘 단계를 거쳐 다음달 10일경 실시할 예정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해남·영암 기업도시 자전거 일주 전용도로 만든다

나주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비롯해 해남·영암의 기업도시, 행복도시(347km) 등 전국 13개 신도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일주할 수 있도록 폭 1.5~5m의 전용 또는 보도 병행 도로가 설치된다.

<관련기사 3·6·8면>
또 2015년까지 철도역에 자전거 보관대 1만 3천 면을 추가 설치하고, 지하철 역에도 보관대를 확대한다. 대구 지하철은 역당 20~30대, 광주 지하철은 15개 역에서 135대의 무료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철도에는 자전거 전용칸과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는 도로·하천과 연계해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도시 등 택지 개발 때 단절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도로망을 확충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총 1천297km를 연결하는 4대강 하천 제방의 자전거 길은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와 연결되고 20~30km마다 간이화장실, 벤치, 음료대, 공중전화,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도심 상업지구에서 차로수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 '도로 다이어트'도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수요 조사를 진행해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조성되는 전국 국도 일주 자전거 도로는 총 2천111km에 이르며, 통행이 잦은 주거 지역과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와 경관이 좋은 곳의 국도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신도시는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행, 자전거 도로 우선으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자전거 교통량을 분석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ark@연합뉴스

미네르바 무죄

법원 "공익 해칠 목적 없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관련기사 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알림

뮤지컬 캣츠 오늘 개막

4월 21일(화)~26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062) 2200-541
光州日報社

정상문 前 비서관 영장 재청구

노건호씨 다섯번째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1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

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이와 별도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10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박 회장의 돈 3억원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정상문 전 청와대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은 계좌를 찾아내 송금된 돈의 성격을 규명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의 행방과 관련,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기술대학교

떴다!

중소기업병 인사/파견법이 떴다

중소기업병 인사/파견법 제정

한국인건부 (www.kicfr.co.kr)

한국인건부 인사팀 (02-2200-541)

한국인건부 인사팀 (02-2200-541)